

제주 이주민의 역사와 현재적 지점

정 은 희(제주 이주민의 역사 저자)



1. 서론

2010년 이후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증가세는 2017년 1월 잠시 주춤했으나 2월부터 다시 매월 1,000명 이상이 제주로 순유입 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제주의 가치는 인문학적·지질학적 세계유산 등록으로 인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제주의 가치는 제주가 국내·외적으로 선망의 땅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2박 3일, 3박 4일 등 몇 일간의 제주 관광을 마치고 “제주도 다 가봤어”하며 이야기를 한다. 발제자는 제주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들을 때 마다 내심 안타까웠다. 제주의 돌 하나하나에, 느껴지는 바람 속에서, 투박하게 오고 가는 제주어 속에 묻어나는 진짜 제주 문화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걸 훑기 식으로 제주를 보고 간다.

‘문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발표자는 표면

적으로 보여지는 제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제주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제주문화의 매개자 역할을 위해 나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제주사람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발표자 또한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으로써 이주민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주의 모습과 제주사람의 모습을 보는 이주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개인사 때문에 제주사람들과 긴 시간 함께 해왔던 발표자가 제주에서 만난 낯설었던 제주의 문화와 제주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 이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제주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들이 있다. 발표자의 경험은 제주어도 그렇고, 삶과 죽음과 관련된 것, 제사와 생일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즉, 결혼식과 상·장례 때 곁부조 하는 것, 의례에 관련된 것,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는 것 등 제주에 오기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주의 문화가 육지문화와의 다름으로 인해 발표자 이주 초기의 제주생활은 매우 낯설었던 기억이 난다.

또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도 높았다. 외부인에 대한 제주의 배타적인 의식은 오래 전 제주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제주사람들은 이것을 제주의 한 특성이라고 말한다. 약 100년 간의 몽고의 지배, 제주인의 입장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삼별초, 유배의 섬으로써의 제주도, 아직도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4·3의 역사 등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외부인의 존재는 제주사람의 피해의식의 근원이기도 했고, 그것은 다시 역사 과정에서 문화적 반감으로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제주사람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제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제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주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주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망은 제주 이주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급기야 제주살이를 위해 생활터전을 옮기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주이주는 TV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현실에서 겪는 제주에서의 괴리감에 힘들어 하는 이주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그들은 제주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들도 한다. 물론 살아가는데 좋은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의 진정한 삶의 모습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의 제주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산업의 원리

에 의한 무차별 개발과 투기 자본으로 인해 제주는 제주가 아니라 시골도 도시도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대의 흐름도 늘 변화의 물결을 탄다. 변화는 역사의 수순이다. 새로운 변화는 다시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다. 안정과 긴장은 마치 한 몸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완시키면서 응축되고 서로를 상승시키는 관계로 발전한다. 모순이 없는 세계는 없다. 모순은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다. 최근에 불고 있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주민들로 하여금 제주를 떠나게 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이주 열풍에 대한 일종의 역풍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제주를 떠나고 싶어 하는 최근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불어 닥치는 제주 이주의 열풍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제주로 오는 것일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로 이주토록 하는 힘과 그들을 이주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현상들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궁금증은 그동안 제주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었던 발표자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금 제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제주 이주 역사를 알림으로써 ‘제주바로 알기’를 실천하는 심정(心情)으로 『제주 이주민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2. ‘이주자의 섬’ 제주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북쪽 목포와의 거리는 약154km, 북동의 부산과의 거리는 약288km, 제주와 완도와는 약90km, 추자도와는 약 49km 떨어져 있다. 섬의 넓이는 1,845.60km²로서 남한 면적의 약 2%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으로, 충청북도의 1/4이며, 거제도보다 5배가 더 크다. 동쪽의 일본 대마도와의 거리는 255.1km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¹⁾

제주도의 동·서간 거리는 73.3km이며, 남·북간은 41.0km이다. 부속 도서를 포함할 경우 동·서간 연장 거리는 동단 우도(비양도)에서 서단 차귀도까지 77.2km, 북단 횡간도에서 남단 마라도까지 100.1km이다.²⁾

이처럼 작다면 작은 땅인 제주도가 이주의 문제로 한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제주를 가리켜 ‘이주자의 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최

1)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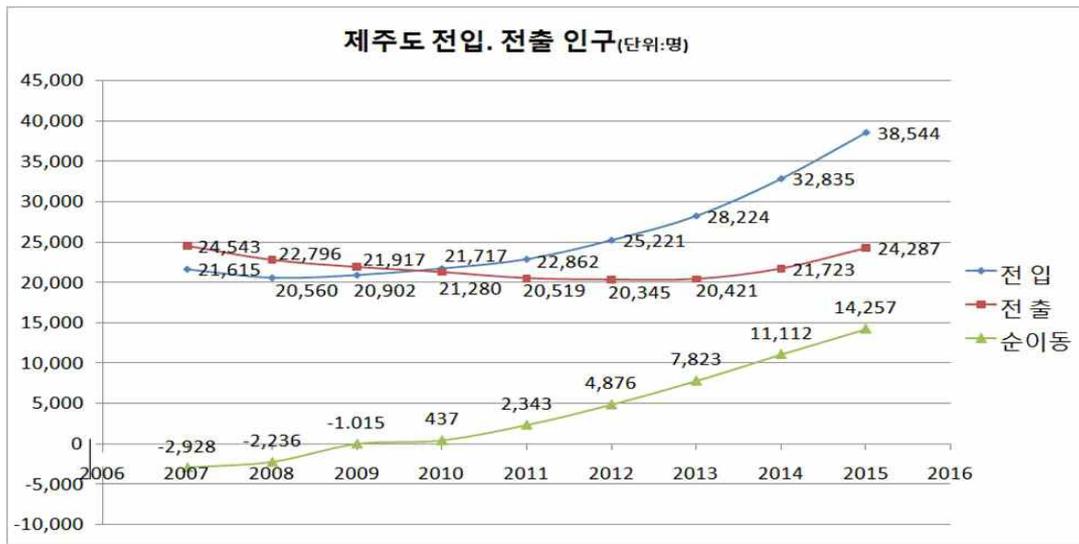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p 15

근 제주도에 대한 도내·외의 관심 키워드는 ‘이주자’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로 인하여 매월 갱신되고 있는 유입인구의 수치, 이주자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과 부정의 사실들은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6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동향에서 2월 한 달 동안 제주도의 순유입 인구가 1,738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 달 동안 매일 60명이 제주로 이주해 왔다는 결과로,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제주도의 최고치이다.

제주도의 인구는 2010년 이후로 전국의 인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제주도의 전입 인구는 38,544명으로 2014년 32,835명 대비 17.4% 증가하였다. 전출 인구는 2007년 24,543명에서 2012년 20,34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전출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전출인구는 24,287명으로, 2014년 21,723명 대비 11.8% 증가하였다.³⁾

인구 증가로 이주민의 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전출인구의 증가는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현황연구 각 년도

주1)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에 의한 자료. 주2) 순이동 = 전입-전출

3)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015, pp77~78

3. 이주의 유형

농·어촌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이동이 심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 든 주거이주(residential mobility)를 경험하게 된다. 보나온 또는 다른 생활방식을 찾기 위한 이주는 인구학적·경제적·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주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이주’와 스스로 이주를 선택하는 ‘자발적 이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주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의 성격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주는 댐·공항·항만의 건설 등 국가에 의한 대규모 정책과 국내의 정치적 영향으로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비자발적, 혹은 강제·반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주를 말한다. 즉, 정치적 이주에는 정책이주와 탈북이주가 있고 과거에는 유배이주가 있었다.

경제적 이주는 실직이나 폐업, 부도 등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졌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경제활동을 하여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이주에는 단기노동이주와 직업이주, 귀향이주, 불법이주 등이 있다.

사회적 이주는 개인의 삶의 욕구와 행복, 그리고 사회적 생활과 관련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현상을 보여주는 이주의 유형을 말한다. 사회적 이주에는 건강이주, 교육이주, 결혼이주, 재난이주, 분산이주, 종교이주 등이 있다.

문화이주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활동했던 장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옮겨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이주는 정착이주와 일시적 이주로 나눌 수 있다. 정착이주는 문화와 예술 활동을 위해 생활의 근거지를 아예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 이주는 문화기획, 문화컨설팅이나 레지던스와 같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예술가들이 약 3개월에서 1년 동안 정해진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레지던스 생활 후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제주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4. 신화 속의 이주민

제주신화에서도 신들의 제주 이주는 제주 신들의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수용적인 태도, 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신들은 외지인이 가지고 온 것을 수용하여 수렵생활에서 목축과 농경생활로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는

외부세계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것을 습득하여 삶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신화에 나타난 유배상황, 소나 돼지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은 역사 시대의 상황을 신화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창조신화(創造神話)로써 천지왕 본풀이를 비롯하여 개국신화 (開國神話)인 삼성신화, 각 마을의 본향당 신, 한 가문의 조상신 등 신화와 전설이 풍부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신화와 전설은 문헌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무속(巫俗)의 굿에서 생생하게 구비 전승되고 있다.

우리는 신화·역사시대부터 모두 이주민이었다.

5. 역사시대 이주민

역사는 기술자(記述者)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이미 쓰인 역사는 쓰여진 역사로써 다시 쓰여 질수가 있는 것이다. 역사는 시대의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를 쓰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쓰여진 역사는 쓰인 역사로써 냉철한 판단과 논리적 객관성이 요구된다.

어느 시기든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탐라시대의 이주역사는 탐라국 형성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학자들마다 제주도의 유입과정을 다르게 주장하고는 있으나, 결국에는 탐라국의 형성은 육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제주이주는 유배를 오거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오게 되었다. 몽골은 전쟁에서 패한 타 민족의 왕족들과 일반 죄인들을 탐라에 유배 보냈다. 탐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관원과 군인, 말을 관리하기 위한 목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하였다. 삼별초와 관련된 군인과 그의 가족들의 제주유입은 제주사회에 흡착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이주는 조선 개국시 고려 유신들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절개를 지키며 조선의 관직을 받지 않고 제주로 낙향하거나 유배를 오게 된다. 명나라의 발흥으로 몽골의 유민(流民)들도 유입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정쟁과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왕족은 물론 고위직의 양반들과 죄인들이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파를 피해 벼슬을 버리고 제주로 낙향한 선비들도 있었으며, 유배를 왔다가 유배가 풀렸음에도 출륙하지 않고 제주에 남아 제주입도조가 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성씨도 있다.

6. 근·현대 이주민

근·현대 이주민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제주이주와 해방 후 미군정과 4·3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군인, 서북청년단들의 제주 입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제주 이주는 제주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 제주 통치를 위한 일본인 관리자와 기술자들은 제주도의 군사기지 건설공사에 타 지방 사람들이 강제노역을 하며 생활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풍부한 바다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일본 어선사 [잠수기회사] 들, 일본인 상업인구 등의 제주정착은 제주바다 자원을 고갈시키고 제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반면 제주도민들은 일본에서 임금노동을 위해 출국하거나 제주도 잡녀들이 일본으로 출가함으로써 당시 제주의 인구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1945년 8월 일본은 패망 이후 10월 23일부터 제주도에 남아 있던 일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해방공간은 혼란기로서 미군정 통치기인데 4.3이후 본토 경찰에 대해 제주 파병을 승인하면서 진압을 위해 서북청년단을 증파하기도 했다.

해방 후 제주도의 인구는 징병과 징용, 일본 노동시장에 나가 있던 주민들의 귀환 등으로 60,000명 가량이 증가하였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제주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1950년 7월 1만 여 명의 피난민이 제주에 입도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내려옴으로써 제주사회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새로 제주로 들어온 피난민과 육군 제 1훈련소의 모슬포 설립으로 훈련소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제주도민은 이들 이주민들을 통해 육지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과거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주도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주자가 많았다면, 현대에 와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7. 종교 이주민

종교는 현실의 모순을 달래 주거나 도피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는 인간에게 기복(祈福)과 내세(來世)의 영생을 약속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 속에 인간의 정신적 욕구도 다양하여 그것을 정신적 지주로 신앙하는 여러 형태의 종교(宗教)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종교에는 기성종교군(既成宗教群)과 신흥종교군(新興宗教郡), 종교적 맥락 속

에 있는 민간신앙이 있다. 기성종교라 함은 유교·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세계적인 종교로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한국에 들어와서 뿌리내린 종교를 의미한다. 신흥종교는 그 종교적 진리가 아직 보편성을 가질 만큼 입증되지 못한 종교로서 그 전파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때로는 특정한 지역을 넘지 못한다. 대개 신흥종교는 근대에 발생한 종교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민간신앙의 주류는 무속신앙이다. 민간신앙은 기성종교나 신흥종교와 달리 교조도 없고, 교리도 없는 일종의 자연종교이다.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신앙현상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민중 속에서 신봉되어 왔다. 민간신앙은 대체로 미신으로 취급되었으며 항상 억압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 왔다.⁴⁾

제주의 종교이주민은 천지대안도, 산신교 등 일부 신흥종교가 제주도내에서 발생되고 전파되었으나 그 외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기성종교와 대부분의 신흥종교는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종교 관련자들이 제주로 이주하였다.

8. 문화 이주민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제주를 관광을 위해 방문했던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문화 활동과 관련된 예술인들이 제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을 지역의 경제적 발전 맥락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려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원도심에 문화예술인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행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문화를 통해 이주민을 지역주민으로 유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이주민과 지역 구성원간의 관계를 상생 회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 살리기의 일환인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은 제주의 자연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고 제주에서의 일상이 예술활동의 일부로 선택하여 이주를 결정하기도 한다. 제주에 정착한 문화예술인들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예술활동을 통해 작품전시와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4) 유동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개설」,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84

9. 이주민의 정착과 전망

제주 이주민의 역사는 오랜 세월 제주를 형성해온 수많은 시대 상황들의 지류가 모여 오늘날의 제주역사의 본류가 되었다. 현재의 제주도는 '이주자의 섬'으로 이주자의 세대 속에서 층층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제주섬의 역사는 이주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주자는 제주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도 미칠 것이다.

2010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제주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르는 개발은 제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최근 나타나는 사회현상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2017년 6월 현재 제주의 인구는 66만을 넘어섰다. 제주도 상주인구 100만을 목표로 제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물 부족, 둘째 생활쓰레기와 수질오염, 셋째 교통, 넷째 생태계와 경관, 다섯째 제주문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물 부족 문제이다. 제주 공기업에서는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물로 만든 상품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지하수 채취량을 증산하고 있다. 일부 사기업에서도 지하수를 뽑아 상품화함으로써 지하수 도외 유출량이 증가하여 지하수를 고갈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관광객과 거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관광객은 여행 경비를 지불하고 숙박을 한다는 생각으로 물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개인은 허가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을 뚫기도 하고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물이 누수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간한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제주도의 누수율은 43.2%로 생산되는 수돗물 중 56.8%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하루 채취하는 지하수 양을 엄격히 조절·제한하여야 한다. 무절제한 지하수 채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지하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계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등을 홍보하여 물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활쓰레기 증가와 수질오염의 문제이다.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이 버리

고 간 생활쓰레기 증가는 처리시설과 관리부족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거리 쓰레기통의 철거로 인해 도시, 농촌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 씻긴 물들이 지하로 흡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나 테이크 아웃점, 상품 포장 등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증가는 결국 생활 쓰레기가 돼 지역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자는 보수교육시 받도록 하고 사업체에서 일회용 사용을 감소했을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고,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사에서 정화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축산분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문제를 들 수 있다. 대중교통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변화에 대하여 기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는 교통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확·포장된 도로의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은 개인 차량 구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제주에서는 '탄소 제로섬 제주' 를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를 배정 받은 후 기존 소유 차량을 대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차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다.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 228,858대에서 2016년 3월에는 443,345대로 194% 늘어났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따라 환경오염과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자동차 등록대수/세대수

제주도는 '토목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낮에 이동하는 대형차량들은 때로는 운전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타이어의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수치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도시와 달리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일상생활의 편안함, 완만한 교통 흐름의 여유로움 때문에 제주에서 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최근의 제주도는 평상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빠른 차량증가로 인해 점점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신제주와 공항입구를 연결하는 제주시 도령로의 경우 2016년 6월 중 통행속도가 시속 19.3km로 서울 도심의 시속 19.6km 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자동차 공회전 시간이 늘어나고, 교통정체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확산을 가져오며, 차량 연료비가 증가하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정책들이 제주도 상황에 맞는지는 검증해 봐야 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제주의 교통흐름과 도로 상황,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렌터카 사용 가능 연령을 높이고 운전경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여 사고율을 줄여야 하며,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생태계와 경관의 문제이다. 제주의 자연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축의 허가는 결과적으로 제주주민과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제주 자연의 모습을 빼앗아 가고 있다. '경관의 사유화' 폐해는 제주의 자연을 대자본가가 소유함으로써 건물 신축 후 주변의 제주자연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인식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건축물의 증가와 도로의 확장은 건축 폐자재 처리 문제와 산업쓰레기의 발생, 더 나아가 녹지공간의 감소와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 등 총체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개발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택 단지 건설과 도로 포장, 상·하수도와 전기공사, 인터넷 케이블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다양한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개발들이 결국에는 개발로 인해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

드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연이 좋아 제주를 찾아 온 사람들을 거꾸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차원의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제주상황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현재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한 행동으로 자연환경 파괴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처음 시작되는 환경의 작은 파손들을 수리·보완·보호하지 않으면 '생태계'라는 거대한 유리창이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제주의 자연이 개인 것이 아닌 공동의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제주도의 자연을 후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를 염두에 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바다의 매립과 지반 정비 사업 명목으로 건설되고 있는 해안도로는 도로 개설로 인한 조간대의 파괴와 물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바다늪조 현상, 모래 유실을 초래하고 있고, 밀물 시 월파로 인한 해안마을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제주생태계와 경관은 개발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 평가, 개발 계획관리 제도 등 철저한 검토와 일관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주문화의 원형파괴 문제이다. 문화재의 개·보수 작업 시 관련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 복원된 문화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때로는 전문성보다는 예산에 맞춘 복원의 결과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예:전통주택)에 대해 제주전통을 유지하려고 해도 주변과 비교되는 경제적 결과에 의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라 해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제주도는 돌·바람·여자가 많은 삼다의 섬, 도둑·대문·거지가 없는 삼무의 섬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하고,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파트단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주민인지 손님인지 서로 모르고,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 2017년 (사) 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상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 상대에 대한 몰이해로 신뢰사회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는 제주에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섬의 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과 해수면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43년간(1964~2006년)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약 8cm 상승하였다. 43년간 제주 부근 해수면은 22cm 상승하였으며, 2100년에 해수면은 20.9cm 상승이 전망된다(국토연구원, 2012). 이러한 해수면 상승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해양자원을 활용한 제주도 관광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산방산 앞의 용머리해안은 해수면의 상승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 만조 시간대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20여 년 전 용머리해안의 절경은 해안 전체를 돌며 경관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부터는 일 년에 1/2 정도가 통제 되고 있다. 또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이 만조시 어항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연간 국내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5.70mm, 서귀포 3.73mm로 전국 평균 2.48mm을 크게 웃돌고 있다.

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4년 방어축제는 제주도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방어들이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제주도 모슬포에서는 방어 어획량의 감소 때문에 축제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왕벚꽃 축제, 유채꽃 축제, 한라산 철쭉제 등은 꽃의 개화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으로써 축제날짜가 부득불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와 같은 관광정책을 논의할 때 행정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주민, 관광객이 자연과 함께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제주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문화 해결방안으로는 제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통한 경제적 효과성 홍보와 함께 제주문화와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 이전을 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제주문화교육과 제주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제주 주민들에게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사라지는 제주문화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 제주사람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존속시키는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결론

제주로의 인구유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를 한마디로 '이주자의 섬'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신드롬을 가지고 이주하여 정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생활은 그들이 생각했던, 누리하고자 했던, 제주에서의 삶과 실제의 삶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격차들로 인해 결국에는 그들을 제주에서 떠나게 하는 '떠나는 섬'으로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주다움으로 섬을 지키고자 한다면, 처음처럼의 마음과 의욕을 가지고 제주에 온다면 제주 '이주 열풍'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알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조심스런 개발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제주가 될 것이다. 제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함께하여야 한다.

제주도가 이주민과 제주 주민·이주민과 이주민·제주주민과 제주주민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다면, 제주는 '이주자의 섬'에서 '공존의 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연자원의 보존 노력과 문화자원의 보전, 경관보호에 공동으로 함께 참여한다면 아름다운 섬, 살기 좋은 섬,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다운 공공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 김유정, 『제주 풍토와 무덤』, 서귀포문화원, 2011
- 유동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개설」,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84
- 정은희, 『제주 이주민의 역사』, 서귀포문화원, 2016
-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